

이암 1주차

독서 1일차

구조를 잘 파악하자!

⇒ 위류동해 모습보이며 자기주장 내세울때는 말이 바뀌는 것부터 잘 볼 것!
결론부분이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음.

⇒ 지문이 비중을 둔 부분은 문제에서도 비중을 둔다.
⇒ 첫문단에서 방향성 잡고 시작하기

「문 구조도!」

< 지문의 주제 (질문) > 잡고
방향성 나타내는 문장 잡고,
말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기

⇒ 철학적 사고실험의 경우

문제와 조건이 같을 수도 있지만, 다를 수도 있음
사선이 더

ex) 지문 「오른손 / 왼손」 → 경치지 X
<보기> 「R / Я」 → 엮쳐짐

⇒ 문맥상 의미파악!

너무 이르게 결정하지 말 것! 당연!

㉠: _____

㉡: _____

독서 2일차

모든 내용은 유기적 구조를 갖는다.

파악 어려웠던 구조

A와 B는 ~에 존재한다.

△ 「A는 B와 구분되어야 한다」

** 대상들의 관계에 주목!
「리체와 벤틀리는 상반,
이들과 미술사가는 어떤 관계?」
「파노프스키는 ~하고 ~하여
세단계로 이루어진 ~를 했다」

내가 취해야 하는 태도?

⇒ 분명히 3단계 나와 있을 것

⇒ 문장단위로 구획 나누기 (선 수식 주의)

⇒ 공동된 단어 반복? (ex) ㉠ ㉡ ㉢ 의미

⇒ 선지에서 비중있게 다룰 것이라는 생각

* 문제의 구성과 답이 되는 구조 잘 보기

독서 3일차

주제잡기 ⇒ 왜 이 대상들이 나열되고 있는지?

구조파악 : 대상들이 셀 수 없이 나열된다면

그 대상들의 큰 범주를 잡고, 대상들을 설명하는

문단의 구조가 같을 거야! → 후수 생연 ~

「문 구조도!」

이러한 상황에서 □가 증력과 방출하는데
그 이유는 ~ 하기 때문이야. + 부록

* 손가락 거는 부분은 항상 표시하기! ⇒ 나열된 내용은
순서대로 하면 안 된다!

* 증력과 방출이라는 말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기

독서 4일차

주제잡기 ⇒ 질문은 무조건 잡고 가자! 방향성

과학기술 주제잡고 과정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이해!

「원이나 라원은하와 달리 나선은하 나선팔 안정적인 이유」

상대적 위치 유지 → 구조적 안정성 (유기적구조)

속도 / 거리 무관 → 회전각도 다름 → 상대위치 유지 X

→ 나선팔 없어질 것 → 주제설명 X

(왜 이 말들이 나왔는지 파악)

②림이 나온다면 ①림을 이해하라! ①림 X → ②림 ②림 X

⇒ 줄을 ②림에 대입시켜보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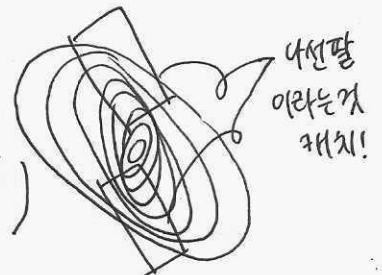
① 나선팔 구역은 밀도가 높다

**

③ 나선팔은 특정한 별들도 이루어진 것 X

공전궤도간의 간격이 좁아진 것

② 밀한부분 소한부분 반복



나선팔
이라는 것
캐치!

주체의 오류는 항상 조심!

많은 내용을 다

내선달 ← → 은하

부가 정보로 넘기지 않기

미생물 ← → 반수동물

↳ 이제는 부가 찾는 연습중!

독서 5일차

수식구조 무시하지 않기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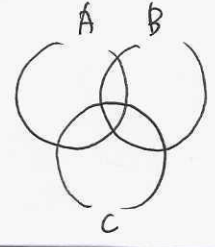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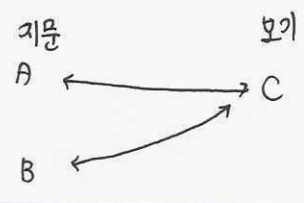
⇒ 어떤 행위가 나온다면 목적을 항상 옆두에 두기

⇒ 수식어에 따라 행위의 방향이 전개되는지 잘 보기

목적 나타내는

들어난 순례자 → 생디 개축 → 개축방향성

누임명령 + 보기와 글을 잘 대응시킬 것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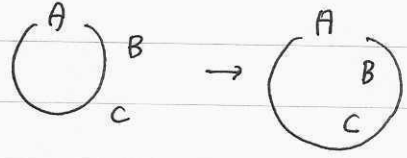


마르고 달도록

2022 예비시험

외연: 일정한 개념이 적용되는 범위

외연을 확장한다: 그 개념이 적용되는 범위를 넓힌다



* 구조가 보이는 문장이 괜히 나올까! 없지만 나온다면

ex) 2원식으로 동일론은 이원론을 반박한다.

⇒ 어떻게든 구조 찾을 것!

* 수식어 구조 잘보기 & 바유에 잘 대답하기

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 → 정신을 부정하는가?

포개기 / 잘 보기

"독립적인"을 부정하는가?

* 귀류 통한 모순연 상대방의 주장 지적하는 동시에 새 의견 강조

귀류에서 나오는 결론의 의미를 잘 파악할 것.

* 모든, 완전히, 완벽히 = 예외 x

* 결론은 맞지만 그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잘못된 경우

→ 과정 도출시 예외, 논리성 보기

ex) 화학적 조성 띠어야, 생각이나 의식은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 적용 x

* 추상적 개념은 그곳에서 대응하는 말을 반드시 찾을 것!

* 문학은 선 일치/ 후 추물

가장 적절한 → 조건 & 사실 ... 고려↑

~~적절한~~ → 사실

적절하지 않은 → 사실

* 소재의 의미는 정확히 파악하기

ex) → 개유칙

* 고뇌와 내적 갈등, 성찰의 유연성

* 비교대상 잘보기*

↳ 더욱이 많은 두개를 비교할수도!

* 문맥 추론은 다른 문장을 가지고!

* 관념적인 (생각으로만 ... 확실하지 x 추상적인) ...

* 지문에서 비중을 둔 것은 문제에도 비중 O!

C.f.) 이광수의 소설 제목이 「무정」인 이유!

작가는 형식이 영채에게 보인 그 무정함을 비판한다.

작가가 우리 조선에 대해 유정을 내비친다고 볼수 있다.

"무정한 세상이 언제까지나 무정하지만은 않는다" 내포하는 것.

마르고 닳도록 2021 수능

* 시어의 변주

⇒ 시구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시어 바뀌어서 사용

* 문학에서 내용 문제중 적. 많

⇒ 일치관계! 항상 선일치 후추론

* 고향을 상설했다는 것

⇒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

비문학에서도 선지 % 따지기

⇒ 말 바뀐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면,

% 따짐으로 해결하자!

선지 구성

①, ② A ③, ④ B ⑤ A, B

* 매력적인 오답선지

⇒ 지문에 있는 말 첨가 후 뒷부분 흐릿하게 하기

매력적이지 않은 정답선지

⇒ 지문에 없는 말, 범주가 다른 말 가져다가

그 내용에 맞게 변형

③ 청과 조선의 가치 평등하게 인정하고 /

평등으로 인한 차이를/ 해소하려는

⇒ 지문에 많이 나온 말 + **해소??** (X)

⑤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 지양하고 /

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 유지 (O)

↓
선질이 범주를 밖에서에서 넣음

+ 독자성을 끌고 온 이유

밖 ↔ 이 대립 상황에서

"밖에서는 ~가 **독자성**을 유지하기보다는,

↓
융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"

* ~보다는, ~가 아니라 구조

* 해소하다 ⇒ 없애다 ↔ 해결! (조심)

* 사건 사건 사이의 연관성

인구증가 ⇒ 여러문제

"인구증가로 인한 여러문제는 ~"

"늘어난 순열자에 따라 쉬르느~"

⇒ 해결책이 나오든, 문제가 나오든

이 문제의 원인, 목적과 연관!

+ 인과관계도 조심!

① A로 인해 B가 일어난 ~가 ~군.

└──┬──┐
 ↑
 원짜인지.

* 5. ① A ③ B
 ② A ④ B

8. [A]타 A의 광원으로 ~는?

⇒ 답일 확률은 5-③, ④가) 5-①, ②보다!

대체적으로 5가 보일 8 보일 때 더!

⇒ 이번 수능은 "간과한다" 표현 많이 나왔다!

⇒ 이번 수능 문학 일치 문제 ↑

+ 선지 뒤에서 흐려지는 영향 강하다.

→ 헛갈린다면 선지로 가서 문맥을 읽을 것!

④ '나'는 나무가 차에 부딪혀 죽는 것을 보고,

전쟁의 실상 깨달음으로써 체념적 현실인식 갖는다.

→ 혈관속을 ~ 이 비장한 감각, 심연에서 ~ 하는 생동감

없이는, 저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나무 따위야

이유것도 생기할 것이 없지.

(하지만 나는 전쟁 중이므로 신기하다.)

* 가장 중요한 문학 <보기>

무조건 <보기> 내용이 지문에 있지는 않다.

⇒ 거의 수특 연계지문이 꽤 많이 2월대!

* 가치함을 위한 ~는 "예약이 아닌 계약이다."



① 선지에서 애매 계약이라는 것 이용

② " 예약은 애매한 것 이용.

* ① ③ ⑤ 대응시키는 문제는

특히 약하니깐 잘 보 풀기!

* 역순행적 - 시간, 시간 흐름 x 섞여서
vs
(척상)

역전적 - 거꾸로 전개

* 고전소설 속 서술자의 게임

논평 아 등조 ...

① 우왕적 전회

채만석 「태평천하」

- 했으면 딱 상황이 - 했것습니다.

「삼정전」

하늘이 가만 들리 있었는가?

② 우왕적 감상

어찌 - 하지 않으리오 (라)

③ 독자에게 직접 말 언넌

거동보소 / - 는 기록하지 않겠다.

④ 확신의 어조

~ 하고 누가 ~ 했것다.

⑤ 회상의 어조

- 하면서 OO는 태평하게

살아가더라~.

* 소재의 이해

① A에서 B에서

③ ④

④ 거울... 거울...

② 만 영등한 대상들.

→ 의도??

수식어를 쪼개자!

ex) 다른 물체에 ^N가려짐이나 /

소명에 의해 물체 표면에 생기는 ^N명암, 그림자 등..

⇒ 앞은 품사 단위로!

비문학의 선지 구성

4. 비례

1 ~와 달리 보았는가?

5. 스킷듯이 재나는 개념

↳ 박제가. 이덕무 때에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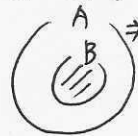
(중요하게 다룰 것 같았는데

그렇게까지 다루진 않는 것들)

2. 선후

6. 각 ~ 하나씩 보았는가~?

3. 범주화

 ⇒ B는 A의 특성 가지고 있다!

7. 나오지 않은 비용

* 뒤쪽으로 갈수록 답이 밀리듯이 △와 X, O 많어짐!

⇒ 앞쪽 선지 판단 신경쓰고, ㉠, ㉡쪽에 무조건 답 몰지는 X.

⇒ O, X 신중히 고르자...!

* 과학·기술에서 단계가 쪼개진다면 어느 단계에서

무엇을 하는지 꼭 확인! ⇒ 아마 범주 오류일 확률 ↑

ex) 모델링, 렌더링 / 정상 스프링 / 화면간, 화소간 부호화.

* 영단어 표현 (생소한 ver)

• 반어유문 : 가난하다고 해서 여짜 사랑을 모르겠는가.

• 돈호법 : 임이여. 사랑이여

* <보기>는 출제자의 관점 + 해석

⇒ 선지 약화 표현 많이 들어감.

* ~를 떠올리는 상황 ↔ ~를 고려하는 상황

↓
잘못 보지 말것!

⇒ 왜나 쉽게 파악할 수 있다!

문학에서 정서가 심화되는 것은 당연!

⇒ 뒤는 불필요 없다! (이 선지는)

생소 ⇒ 비웃음 (부정적 상황에서의 웃음)

전반한 현실 ⇒ 항상 좋은 뜻만은 아니다.

구절 -하지 않아서 vs -하지 못해서

외부적 원인 확률↑

* 항상 쓰는 문학의 사실관계의 중요성

* 항상 지문 비중 = 선지비중임을 잊지말자!

역순이력을 쓸때에도 선지는 지문에 근거한다.

비문학에서! ~로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것은?

~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것은?

ex) 광고물의 ㉠에서 의미와 ㉡에서의 의미는 같을것이다.

⇒ 그냥 맞는 게 아니라 "위임명령이 "손거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벗어나면" "소레 가" ~

⇒ 반복되는 내용은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?

* 독백적 서술

⇒ 저 패셔한놈 말하는것좀 봐라. (마음속으로)

청자가 설정이 되어있어도 내눈앞에 없으면 독백 혼잣말로 중얼거리듯이/작고 낮은 목소리로"

(-했다. -했다식의 구조는 ...?)

- 정서적 반응

대상에게 대한 감정/태도/인식 (의 변화)

- 병렬적 서술

철수도 우리반의 아이였다. 영희도 우리반의"

- 묘사적 서술

외양을 나타내는 것은 묘사적

- 정보의 단계적 제시

20년전 000은 ~했고, 10년전은 ~했으며 5년전 ~, 지금은 ~하다.

* 서술방식은 항상 전체적으로 보아야 한다. 내용전개방식

09 행정입법 지문

법지문으로서

"법률"의 종류, 대상들간의 관계정립이 가장 중요하다.

ex) * 위임권거법률 →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기 전에 필요한 것!

법지문은 예시 (구체적인 상황)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.

㉠, ㉡, ... 에 대응되는 범주를 찾지 못한다는건 위험하다.

이 글의 특이한 미시 구조!

⇒ ex) 행정입법에는 행정규칙, ..., ... 가 있다.

행정입법

행정 규칙은 원래 ~한 건데, 예외적으로 ~할때가 있다.

⇒ 모든 대상의 원래목적이 주체라는 통념을 깨는 구조!

* 시업적이지만 챙겨알만도 하다!

⇒ 문맥의 의미를 잘 챙기자.

여기서 예외적인 역할이 주체에 맞는 것이 라면 문제도 당연히 여기에 더 비중!

* 인물에게는 모순적인 두면모도 분명히 존재한다!

⇒ 근대문물에 빠르게 적응하면서(도) 전근대적 토착세도에 편승하는 인물

⇒ 왜 보조사자가 나왔는지 잘 파악하기

* 선지가 여지로 비틀렸다는 느낌 받는데 오답!

* 비문학의 우체오류, 선후유류는 품임업이 괴물할 것이다.

* 자꾸 선지 뒤 흐려지는 경향!

* 어떤것 같은 어려운 선지도 다시 한번

비교 대상 간의 관계? 항상 상반은 X

⇒ 부각 위해 비슷하지만 정도 ↓ 대상도 0

ex) 윤선도 만홍

⇒ 남이 모다 반가움이 이러하랴.

* 우회하다

→ 자신의 의견 직설적으로 드러내지 X

* 보기가 길어져서 두개의 보기가 연결되어 지문에 이어졌다는 생각하기!

* 문학에서 구절. 발화 이해

1 발화 의도 파악

2 갈등 → 해소 여부

3 심리 정서·마음

* 전근대적인 ~.

⇒ 시대착오적인 ~. 구식의 ~

* 수능특강 지문(특히 소설) 지문에 대응하지 않는 부분도 (보기)에 제시하는 경향이 0 ↑

* 근대 수특 연세 + 생소한 시 풍동보기는 그런 것 하지 않음.

* 단어에 '□' 표시는 지문의 문맥상 의미 파악 뜻

ex) 안승학의 근본을 아는 ~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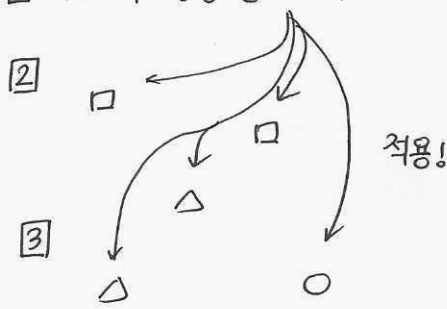
㉠ ~의 '근본'에서 ~.

* 복수표현 체크 -들에게

경험적 : 화제가 직접 겪은
 ↑
 추상성
 ↓
 구체성
 ↓
 평면적 : 머릿속 생각, 이념, ...
 추상성

「새로운 비문학 구조의 트렌드」

II 사전지식 왕창 쏟아내기 ⇒ 예에서 부록처럼 읽지 말고 대상 별로 구조화하기



* 설의는 의문을 던지는게 X
 2냥 답이 뻔한 의문문

* 명탄 - 감탄, 한탄도 포함.

추상성이 강화된 소재

⇒ 그 높이를 회복해야 한다 「고고」?

* 자신의 정서 대상에 투영

< 자신의 주관적 입장이 가미된 소재 >

2 대상이 감정을 가질 때, 교감이 가능할 때

* 문학의 익숙하지 않은 문장구조는

나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 선지로! 다룬다.

* 유형의 분류는 문제만들기 너무 뻔하다

→ 읽을 때부터 비교하기!

미시독해
 - 는 (크게) ~ 로
 방향성 제시 (단어)

※※※ (라기)

- 등의 [] 은
 이거 큰 범주

* 범주들 관계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함.

* 읽을 때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은?

I 문단주제

II 구획주제

III 부록주제

※※※

* 지문 [] 는 A한다
 선지 — 는 A한다 (O)

★ 가장 중요

지문 (~ 등의 ([] 은)
 선지 ~ 는 A한다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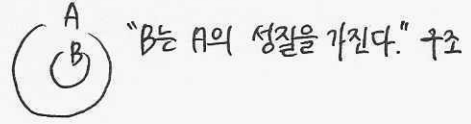
✓ ① A한다!

제 5회

2020 수능

보기에서 내용형. 이론형은 "독해"가 필요하다.
단어의 문맥상 범주 ... 항상 보기 정독
알레고리 ⇒ 풍자표현.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...

항상 범주화가 글을 읽는 가장 첫, 근본적 태도



* 비문학에서 % 따지는 연습 계속하기 (문학)

* 문맥상 의미. 한 문장 깊게 파고들어 예시제시하라고 할 때는 앞·뒤 구절에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조건 나오는 경우 ↑

* 주체모욕은 끊임없이 괴롭힌다!

* 고전소설 [발화의 주체와 각각의 내용만 잘 파악해도 O
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 & 대부분

* 선지의 이상한 비교대상 짝 맞추기
= 수색어구(비교대상마다 어구 품기가 가장 중요!

* 선지의 말 바꾸기
A하다면 B하지. (지문)
(가 B하는데 A 한거지? (선지)

* 인물의 (+), (-)라 문학의 사실관계 먼저 따지기.

* 평가원의 선지 약화.

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 ⇒ 약화된 표현
~ 라면 / ~ 아닐까 / 불수 있지 않을까?
(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)
건드릴 수 있는 것
이건 ~야. 그리고 ~해서 ~야
(단정적이고 단호한 표현)

* 심리 투영 ⇄ 제시
반영. 약간 느낄수만 있으면 괜찮음. 뚜렷. 그냥 제시 되어있거나 알아챌 정도.

* 아무리 자연시여도 임증을 부정할 수는 X
⇒ 임증을 그리워 할 수 밖에 / 걱정할 수 밖에
↓
부채는 완전히 싫어할 수 있다.

* 애매하다 - 아니다의 느낌을 제대로 파악할 것!
⇒ 손가락 끝때 가장 치명적!

* 자주 문장 (생소하고 직설적이지 않은 문장) 해석 요구!

설의 - 생업이 괴로우랴
본뜻 - " 괴롭지 않다.

현상감 나타내는 방법

1) 구체적 묘사 2) 현재형 3) 방언 4) 의성어
자문 자답에서의 질문은 애초에 청자도 '나'였어야!

* 꼭! 정치 ≠ 부귀영화 일수도.
「어촌기」에서 벗이 경계하고 갈등한 것은
부귀와 영화에 매달려 살고 그것을 좇는 사람들
↔ 자신도 벼슬을 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 X.

⊕는 A이면서 B일수 없다.
→ A라 B는 모순관계 / 입장이 대립되어야
* 일단 같은 걸 가지고 이야기해야 함.

* 부록은 항상 선지에서 모두 쓰인다는 생각
그냥 생각해보면 맞다는 선지는 극소수
↳ 항상 지문에 근거할 확률이 높다.

⇒ 사실관계가 조금 애매하다면,
단정적 표현에 주목할 것!

2020/8/9A

보기에서 나오는 단어는 출제자의 관점으로 재해석된 단어일 확률이 높다.

⇒ ex) 순환 {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것
영향을 주고 받는 것
... }

<보기>의 순서는 괜히 나온 것이 X
선지도 그 순서 맞출 / 지문도 " % ↑

지문에서 필요한 연결사, 접속사 생략하는 경우
⇒ 그 중 " ", 그런데 " (잘 끼워넣기)

법지문은 계속 내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기
수식어 통한 범주화도 많지는 ^안 경향 ↑ ⇒ 수식어간의 차이점
동한 범주화하기

추상적인 말은 항상 구체적인 말로 대응시키려는 노력

* 부록정보 (여외적, 한편 ") 정보가 쓰인다는 생각!
+ 만약 A가 틀린다면 선지 두개가 다 틀리니까 A는 맞다고치고 가져!

장면의 빈번한 교차는 가출에서 끊어있던 적이 X
생소하면설 상징적인 발화가 출제
뭔가 대상 나열이 보인다면 어떤 범주인지, 왜 나열되는지 생각하기

㉠, ㉡에 1~2 대응 " ⇒ 조건들 파악하기
"를 비롯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
⇒ 초점이 맞는 질문해야 | 사실관계 맞는 질문 해야함

- ① 사실관계 확인
- ② 만약 사실관계가 다 맞으면 초점 파악 까다롭.

* 가장 적절 → 초점 까다롭
적절 X
고르시오 (모두) → 두류응답) ① 다 맞다고 치면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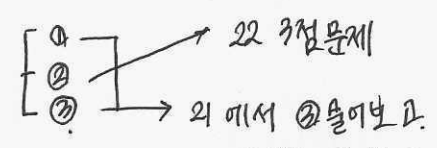
인문/법/과제...
⇒ 부록정보가 3점짜리 쓰이는 경향 0
* 선지에 생판 처음 보는 단어는 거의 X

* 문단구조.

㉠ 위치 → 19 내용 일치 답(주내용)

㉡ GPS/IMV → 20 내용 일치 주내용

㉢ 비론



① 범주 갖다놓은 것이 답

* 모든 것이 답에 다 녹아있는 구조!

<보기> 아래 설명 괜히 나올게!

* 고전소설

서술자의 회상 - ~가 ~하더라

↳ 서술자의 개입 0

* 서술자의 개입은 뒷구절 부터 (정말 답이 X) ^{때때만}

⇒ 주체 오류는 문항도 0!

⇒ 짧고 쉬운 시부터 표현법을 뒤진다!

* 너무 과장된 시의 내용도 답이 될수 있다.

* 2020 6A

현대시에서 직유는 항상 ()해놓기
→ 특히 ~ 듯함 표시하기!

* 어느 부분까지 맞는지 항상 체크해보기!

* 대상들 간의 거리를 ~ 하고 있다
↳ 이 대상들이 무엇인지 따지기

* ~에 대한 이러한 철학적 질문은
항상 대상 표시하기

* ~(만) "할 수 있다"
~(으)

* 방향 오류 선지도 있음 (과기)
⇒ 수신기 - 송신기 / 막 → 세포질 등

* 관히 나열되는 대상들은 없다.

* 매력적인 정답선지 - 생소한 단어 끼워넣기
매력적인 오답선지 - 약간 스킵고 지나갈만한
단어 빼기

* 복에 아메바 문제 (3점)

① 과연 아메바 - 박테리아가 세포소기관이
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내가 가지고 있었는지?

② 양이 쉽게 나온다면 이게 왜 3점인지

③ 메시가 2개라면 왜 하필 2개나 주었는지

④ 선지의 배열 1번은 왜 이렇게 뜬금없게 있는지

⑤ "아메바의 박테리아가 개체성을 잃었다면"
이런 가정을 굳이 왜 했는지 판단해보기

* 지문과 보기에 잉여는 없다.

* 주제를 관통하는 표현법이 정답일 확률! (적절)

* 고전에서 해석이 잘 되지 않아도
(+) (-) 정도는 꼭 파악하자! 2렇게 주체 - 술부 조합
질러내기

* 관계 정립의 오류 ⇒ 인과의 오류 ⇒ 9명 연계
(이것때문에 저것이 일어나게 아닌데?)

② 상식대로 흘러가지 않는 글에서의
범주화

⇒ 내 상식이 개입하지 X

* <보기> 주지 않으면 표면적 의미를
물을 수 밖에 없다.

③ 사실관계 오류
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는 선지

* 금융위기 전에는 ~
금융위기 후에는 ~ 더 중요한 내용
↳ 먼저 보기 (선지에서)

* 선지의 말바꾸기 항상 잘 체크하기
이원론적 → 별개의

* 선지의 새로운 유형
P_A에 — S_A가 아닌
↳ S_B 가져오는 경우
↳ *

⇒ 3점에서는 항상 새로운 유형 나올 수 있음.

* "비대칭적"의 뜻의 경우
↳ 보기에서의 뜻 잘 득해!

* 현대 소설
- 인물간의 관계 ⇒ 발화의도.
⇒ 갈등 (내적, 외적) ...

* 에피쿠로스. 이클루의 원리!
가장 마지막 문단이 앞 내용의 요약
쭉쭉 나열하는 구조!

* 감이 ~를 읽고 "을 비판한다고 할 때,

- ① 사실관계 확인
 - ② 초점
 - ③ 이미 많이 나온 것은 아예
- * 고전소설은 세부 지엽 내용일지
있으니까 한글자씩 정확히 보기

* 보기는 순서를 따른다.

2019 수능 11월

표지: 어우

(+), (-) 있으면 객관적이지 X
(근데 이게 내가 해석한 +, -가 X)

- 이국적인 - 다른 나라의
- 특가적인 - 유럽 시골의
- 향토적인 - 우리나라 시골의
- 낭만적인 - 정서적, 감성적
- 환상적인 - 허구비현실적인

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
 시각화 ← 청각의

까마귀 - 음산한 분위기

피 ⇒ 생명력을 뜻하기도 한다.

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⇒ 간접적이라도 이런 O

∴ 상호텍스트성

모든 작가는 텍스트를 창작하는 사람이 되기에 앞서 다른 작가의 작품을 읽는 독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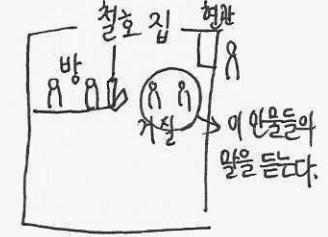
* 시의 "다양한 이미지" ⇒ 시각만 있어도 여러개이면 된다.

- 초 현실주의적 ⇒ 비 현실적
- 천이시키다 ⇒ 자기 나름대로 변용하는 것
- 이론에 꼭 명칭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
* A는 □에서도 영향 △에서도 영향
 하지만 → □라 △는 적잖이 다르다는 이야기

* <보기>의 핵심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.

* 상황을 공유한다 ⇒ 상황을 다 안다
모두가



* 범주 넓히기 - 청각권
 범주 좁히기 - 예탄을

* -에도 발생할 수 있다
 ↳ 예외적 상황

* 했갈릴 때는 상황 가정 후
 답 내보기 ⇒ 답이 하나일 때

* 굳이 가장 앞에 나온 채권에
 밑줄을 긋지 않은 이유는,
 앞에 있는 것과 글자는 같아도 의미가
 다르기 때문이다.

* 법 ⇒ 결국이 법률 행위의 목적이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하다.

* 선지 배열도 큰 비중!

* - 통해 - 하고 있다
 ↓
 둘 다, 인·관까지 정확히

* 추상적 내용 일치 }
 < 구체적 내용 일치

(어느 - 든 - 하다) *
 모든 / 항상 / 반드시

수식어 구조 함부로 뒤로 밀지 X.

말바꾸기 paraphrasing
 ⇒ 추상적 내용 ↔ 구체적 예시
 호환!

* 인문, 철학 등 사고실험제재
 예에서는 진짜 똑-같은 상황일
 확률이 현저히 적음. }
 ↓

가능 세계 / 사고실험 ...

2019 9A

~ 하는 분위기 조성한다]
~ 와 연결된다.

앞내용 맞으면 거의 맞는 표현들

긴 경제지음 - 정책설명서

㉠ 세부내용 일치문제 ㉠ 번 선지는 가장 큰 내용

"S 는 ~ 하기 위해 O 를 한다"

㉡ 매도자 매수자 매입자 관계 조심.

㉢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- ④ 까지
지문에 나오는 내용
→ 나열된 것들 잘 찾아놓기

<보기> 에 나오는 학자의 견해가 항상 두 학자
의 견해를 절충하는 것이 X → 치우칠 수도

철학 지문에서 학자가 반대입장 중 수용한 것
은 중요한 부분임.

밑줄친 소재 ㉢ _____ 에 대해 설명할 때

→ 수식어구 잘 보기

(가) ~ (디) 과정과 (가) ~ (대) 과정이
비교된다면 두 대상이 같은 범주일 가능성은 ↓

2019. 11. 月

갑이 계약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

→ 법률효라 O 행위 X

갑이 계약해제하는 것 → " O " O
단독행위

계약해제권 행사 O → 원상회복 청구권 발생.

㉢ 지문

~ 해서 법률효라가 발생하는 ^{것을} 행 법률 행위라고 한다.

선지

법률행위가 없으면 법률효라 발생하지 않는다. (X)

→ 역의 관계(?) 서로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다.

서로 다른 두 공간을 절충한다.

→ 여기서는 상황을 공유한다 뜻함.

지문에서 설명하는 대상의 특성을 나열

ex) 가능세계까지, 정제 가지성... (오버슈팅)
예비시행 라이프츠...

→ 예시에 끼워 맞추는 문제

(전제 잘 보고, 무엇이 쓰여야 하는지)

인물의 행동 시간에 따라 열거

↓
너무 엄격하게만 하지 않기

